

## 고혈압의 증상과 합병증



송 정 상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 집단검진이나 다른 병으로 진찰을 받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혈압을 silent Killer라고 한다. 혈압이 아주 높은 사람이나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

### 두통

오래전부터 고혈압의 증상으로 알려진 두통은 고혈압을 가진 사람이나 안가진 사람에서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두통때문에 진찰을 받고 고혈압이 있다고 확인된 환자에서 두통의 원인이 고혈압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불안때문에 더욱 두통이 심해지는 사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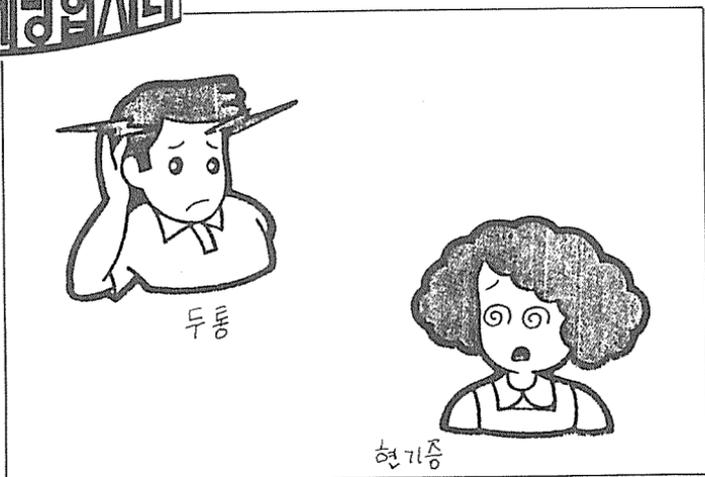
심한 고혈압 환자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두통은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하게 나타나서 그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점차 호전되는 후두부의 두통이다. 그러나 고혈압환자의 두통이나 뒷목이 뻣뻣하다는 증상은 대부분 긴장성 두통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현기증

고혈압환자의 현기증도 고혈압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볼 수는 없으며 현기증이 있을 때 혈압을 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과 현기증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기증에 의한

#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현기증을  
고혈압 환자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긴장으로 일시적인 혈압상승도 있을 수 있다.

고혈압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현기증은 강압제에 의한 기립성 저혈압이 원인이 될 수 있다.

## 비출혈

비출혈도 고혈압 환자에서 특별히 더 흔히 발생한다는 증거는 없다. 비출혈 시 혈압을 재면 대부분 높아져 있는데 피를 보고 흥분해서 일시적으로 높아진 경우가 많다.

그외에도 고혈압 환자는 심장이나 혈관에 여러가지 변화가 오면서 심계항진, 피로감, 호흡곤란, 흉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저의 변환에 의한 시력장애 등도 올 수 있다.

고혈압은 심혈관계 합병증에 의하여 수명이 단축되고 고혈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합병증이 빨리 온다. 따라서 고혈압의 치료는 합병증의 예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심부전

혈압이 높으면 심근비대에 의하여 심실벽이 두꺼워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져 심부전에 빠지게 된다. Framingham연구에 의하면 심부전 환자의 75%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심부전이 발생하면 고혈압을 치료하여도 50%가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심부전은 초기에는 운동 시에 호흡곤란이 오나 점차 심해지면 일상

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수면중 심한 호흡곤란으로 잠을 깨게된다.

### 관상동맥질환

구미에서는 고혈압환자의 과반수가 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관상동맥질환은 고혈압외에도 고지혈증, 흡연 등의 중요한 인자가 있다. 고혈압환자에서 2배정도 위험이 높으며 고지혈증과 같이 있으면 5배, 흡연까지 하는 경우는 10배의 발생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상동맥질환은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혹은 급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 뇌혈관질환(뇌졸중)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고혈압을 치료함으로써 일차 예방 및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관상동맥질환보다도 뇌졸중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Framingham연구에서도 혈압이 높은 사람에서 뇌경색의 위험이 5~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뇌출혈도 고혈압에 의하여 작은 혈관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고혈압 치료로 가장 발병을 낮출 수 있는 경우에 속한다.

“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고혈압을  
Silent Killer라고  
부른다.  
”

### 고혈압성 뇌병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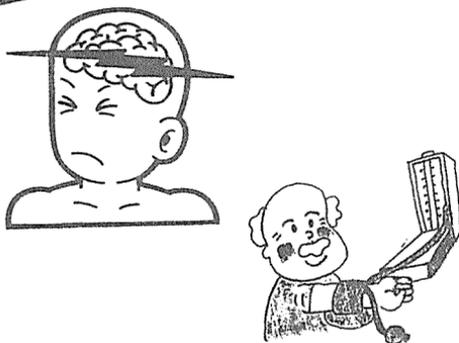
급작스런 혈압의 상승은 뇌부종을 일으키고 이 때문에 심한 두통, 의식장애, 오심, 구토 및 다양한 국소 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환자는 혼수에 빠지고 사망할 수 있으며 적절한 혈압조절로 호전된다.

### 신장애

고혈압이 만성 신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치료를 받지 않는 고혈압환자의 약 1/3에서 신경화증의 소견을 볼 수 있다. 또한 신장애가 발생하면 더욱 혈압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많은 환자에서 고혈압을 치료함으로써 신장애의 진전을 막을 수 있다.

# 고혈압을 예방합시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고혈압을 치료함으로써 일차 예방 및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 대동맥류

대동맥벽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대동맥벽이 확장되는 것으로 대부분 환아에서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다. 대동맥류는 우연한 검사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며, 확장시에는 통증이 동반되고 확장된 혈관이 주위의 식도나 기관지 등을 압박하여 증상이 나타난다. 동맥류는 확장이 심해지면 파열되어 급사를 일으킬 수 있다.

박리성 대동맥류는 심한 통증과 함께 시작되어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역시 고혈압과 관계가 많다.

## 만성 폐쇄성 동맥질환

장기 또는 말초로 가는 혈관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서 말초조직에 허혈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하지

로 가는 혈관을 침범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고혈압과 관계가 많다. 처음에는 운동 중에 하지근육으로 산소공급이 적어져 근육에 통증과 감각이상 이 오고 안정하면 호전된다. 심해지면 안정시에도 통증이 오고 발가락에 궤양이 생긴다.

## 가속성 및 악성고혈압

지속적인 심한 고혈압은 혈관의 급속한 파괴를 가져오며 다양한 임상소견을 나타낸다. 확장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고 막막출혈, 삼출액, 유두부종이 있는 경우를 악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이때는 신부전, 심부전, 의식장애 등이 빠르게 진행되어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이내에 50%가 사망하고 1~2년내에 100%가 사망한다.

〈필자=경희의대학교병원 내과교수